

KIA에게 골든글러브 ‘남의 잔치’ 되나

시즌 성적 8위·최형우 등 주전 이적에 수상자 없을 듯
40세 최형우 ‘최고령’ 수상해도 삼성 이적에 ‘빈 손’



9일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린다. 프로 야구 2025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록’들이 만들어진다. 고향팀 KIA에서 전정 삼성으로 돌아간 최형우는 ‘최고령 수상’ 기록 경신을 노린다. 최형우는 지난해 40세 11개월 27일의 나이로 지명타자 수상자로 호명되면서 이대호(전 롯데)의 40세 5개월 18일을 넘어서 골든글러브 최고령 기록을 작성했다.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지명타자 부문 유력 후보로 꼽힌다. 최형우가 다시 또 시상대에 오르면 시상식 기준 41세 11개월 23일의 최고령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8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KIA는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최형우의 이적으로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승을 이뤘던 지난 시즌에는 최형우와 함께 박찬호(유격수), 김도영(3루수)이 골든글러브를 차지했었다. 통산 9회 수상에 빛나는 두산 포수 양의지는 역대 최다 수상 타이 기록을 노린다. 2014년 처음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은 양의지는 2015·2016·2018·2019·2020·2022·2023년에 포수 부문 수상자가 됐다. 그는 2021년에는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수직하는 등 9차례 수상에 성공했다. 역대 포수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자이기도 한 양의지가 이번에도 이름이 불리던 이승엽(전 삼성)이 보유한 역대 최다 10회 수상 기록과 타이틀을 이루게 된다. KT 외야수 안현민에도 시선이 쏠린다. 프로 4년 차에 폭발적인 시즌을 보낸 ‘중고 신인’ 안현민은 신인상에 이어 골든글러브 동시 수상을 노린다. KBO리그에서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받은 선수는 1983년 박종훈(OB), 1985년 이순철(해태), 1990년 김동수(LG), 1992년 염종석(롯데), 1996년 박재홍(현대), 1997년 이병규(LG·9), 2006년 류현진(한화), 2012년 서건창(넥센) 등 8명이다. LG 오스틴과 롯데 레이에스는 외국인 연속 수상 기록에 도전한다. 오스틴은 1루수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앞서 KBO리그에서 연달아 ‘황금장갑’을 차지한 외국인 선수는 2018·2019년 린드블럼(두산), 2019·2020년 로하스(KT) 그리고 2023년과 지난해 수상에 성공한 오스틴까지 3명에 불과하다. 오스틴이 다시 한번 수상에 성공하면 3시즌 연속 골든글러브라는 외국인 선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지만,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한 한 달 여의 이탈이 아쉽다. 지난해 202개의 안타를 날리면서 리그 최다 안타 신기록과 함께 골든글러브를 받은 외야수 레이에스도 연속 수상을 노린다. 레이에스는 올 시즌에도 187개의 안타를 만들면서 안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KIA 김도영이 장식한 97.2%라는 ‘최고 득표율’ 경신도 관심사다. 김도영은 2024시즌 0.347의 타율로 38홈런 109타점을 만들고 40개의 도루까지 성공시키면서 리그 MVP에 등극했었다. 이어 전체 288표 중 280표를 얻으면서 97.2%의 최고 득표율로 황금 장갑도 들어 올렸다. 역대 최고 득표율은 양의지가 NC 시절이었던 2020년 포수 투표에서 장식한 99.4%. 당시 양의지는 총 342표 중 340표를 얻었다. ‘초대 감독상’ 주인공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KBO는 올해의 감독상을 신설했다. 10개 구단 감독을 대상으로 한국야구기자회 회원사 및 각 지역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들의 투표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한편 2025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9일 오후 5시 40분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진행된 21번 영구결번 착장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환, 박철순, 송진우, 김형태 뉴트리디데이 대표. /연합뉴스

‘끝판왕’ 오승환, 일구대상 수상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특별 공로상

2025년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끝판왕’ 오승환(43)이 2025년 ‘뉴트리디데이 일구대상’을 품었다. 오승환은 8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2025 일구상 시상식에서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프로야구 은퇴 선수 모임인 일구회 일구대상에서 마무리 투수가 대상을 받은 건 오승환이 처음이다. 오승환은 “21년간 프로에서 많은 팬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며 “이번에 은퇴하면서 불펜 투수의 힘든 점을 많이 이야기했다. 은퇴 과정에서 많이 헤아려주었다. 이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후배들에게는 “매 경기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팬들에게 많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야구장에서 멋진 플레이로 보답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05년 삼성에 입단한 오승환은 KBO리그 통산 최다인 427세이브를 수확했고 미국과 일본 무대를 포함하면 통산 549세이브를 올렸다.

국가대표로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등 한국 야구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삼성 구단은 그의 업적을 기려 등번호 2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시상식에서는 오승환과 박철순(OB), 송진우(한화) 프로야구에 영구 결번 21번을 남긴 선수 3명에 대한 착장식도 함께 진행했다. 최고 투수상은 원태인(삼성), 최고 타자상은 송성문(기움), 특별 공로상은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각각 품었다. KBO리그 신인상에 빛나는 안현민(KT)은 일구상 신인상도 차지했고, 박찬형(롯데)은 의지노력상의 주인공이 됐다. 프런티어상은 역대 프로야구 단일 시즌 최다 관중(16만174명) 신기록을 수립한 삼성 구단 마케팅팀에 돌아갔고, 프로 지도자상은 LG의 통합 우승을 도운 김정준 코치가 받았다. 아마 지도자상은 전광렬 경남고 감독, 심판상은 권영철 KBO 심판위원이 수상했다. 일구회는 지난 2016년 세상을 떠난 하일성 전 일구회장의 영상을 인공지능(AI)로 복원해 시상식 도중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한 이정후가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11일 장흥서 개원식

종합 스포츠 교육·연수 기관

대한체육회가 11일 장흥에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을 연다.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자리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선수·지도자·체육행정·생활체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스포츠 교육·연수 기관으로 지난 2022년 착공했다. 개발원은 ▲체육인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운영체계 구축 ▲체육안전·인권·윤리 문화 확산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인프라 제공 ▲지역 연계형 스포츠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교육·연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원식은 오후 2시 개발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유

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백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는 개원 기념 점등식, 헌정식, 대한체육회장 교육 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원 시설 및 교육 콘텐츠 소개존 등을 통해 참석자가 직접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민 회장은 ‘개발원의 중·장기 교육 운영 계획 및 미래 교육비전’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개발원의 추진 전략과 정책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기관이 될 것이다. 체육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 어등초, 우승 ‘강스파이크’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고학년 남자부 정상

광주 어등초가 2025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에서 고학년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배구연맹과 김천시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6·7일 김천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한국배구연맹이 지원하는 전국 유소년 초등학교 배구교실 42개팀이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어등초는 탄탄한 조직력과 공격력을 앞세워 고학년(5·6학년) 남자부 정상을 밟았다. 초등부 중학년(3·4학년 혼성팀)에서는 남양주 별가람초, 고학년 여자부에서는 김천 금릉초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어등초의 ‘에이스’ 김수로는 해설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고학년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중학년 MVP는 김시현(남양주 별가람초), 고학년 여자부 MVP는 안민하(김천 금릉초)가 받았다. 어등초 ‘주장’이기도 한 MVP 김수로는 배구 명문 문흥중 진학을 앞두고 있다.

“친구들이 싸우지 않고 끝까지 힘내서 잘 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며 우승 소감을 밝힌 김수로는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승을 이끈 운영환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는 “지난 8월 제천에서 열린 유소년 클럽 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고, 광주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대회에서는 우승해서 이번 전국 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1년 동안 훈련하면서 흘린 땀의 결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뿌듯하고 대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MVP를 받은 김수로에 대해서는 “배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 훈련 태도와 집중력이 남다르고, 무엇보다 성실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그는 최근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선수 풀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윤 교사는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아 재능 있는



지난 7일 2025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고학년(5~6학년)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광주 어등초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등초등학교 제공>

친구들을 선발해 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건이 그만큼 되지 않아 아쉽다”며 “여학생의 경우 한 반에 7·8명 수준이라 한 학년 팀을 온전히 꾸리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아이들이 배구를 통해서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른이 돼서도 여가 생활로서 배구를 즐겨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는 유소년 배구 클럽 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를 목표로 2013년부터 시작해 매년 동·하계에 걸쳐 열리고 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